

뉴스 라운드업

-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 우려에 국제유가 상승, 미국·유럽 증시는 소폭 약세로 마감 (WTI 배럴당 83.20 달러 +1.30%, S&P500 -0.32%, 나스닥 -0.60%)
-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서기 레자이, 미국이 조건(종전·해외자산 동결 해제 등) 수용 전까지 호르무즈 봉쇄 유지 천명 - 파키스탄·카타르가 전한 '타결 임박' 기대 하루 만에 후퇴
- 연준 굴스비(시카고연은)·베너블(애틀랜타연은) 잇달아 인플레이션을 최대 리스크로 지목, 수요일 미국 7월 소비자물가(CPI) 발표 앞두고 긴축 경계 재확인
- 미국 국채금리 밤사이 등락 끝 소폭 하락 마감(10년 4.694% -1.1bp), 독일 라인강 수위 저하로 화학·발전 업계 생산 차질 확산

호르무즈 봉쇄 장기화 우려가 유가를 밀어올리며 뉴욕증시를 소폭 끌어내렸다

전일 낮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미국과 이란의 타결이 임박했다고 전하며 번졌던 낙관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.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서기 레자이가 미국이 종전과 해외 동결자산 해제 등 조건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고,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에 50년간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. 이에 따라 서부텍사스산원유(WTI)는 배럴당 83.20 달러로 1.30% 올랐고, S&P500(-0.32%)과 나스닥(-0.60%), 다우(-0.34%)는 낙관이 꺾인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우며 소폭 하락 마감했다. 반면 범유럽 STOXX600은 보합(+0.01%)에 그쳐 유럽 증시는 상대적으로 충격이 제한적이었다.

국채시장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. 타결 기대가 살아있던 장 초반에는 안전자산 수요로 미국 국채가 강하게 매수됐으나, 이란의 봉쇄 유지 발표 이후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하며 10년물은 1.1bp, 2년물은 2.1bp 하락에 그쳐 마감했다. 독일 10년물도 1.9bp 내린 3.165%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. 같은 날 연준 내에서는 굴스비 시카고연은 총재가 "지금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산업·고용 붕괴가 아니라 물가와 구매력"이라고 발언했고, 애틀랜타연은 임시 총재 베너블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물가 둔화 여부는 중동 정세 향방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. 두 발언 모두 수요일 미국 7월 소비자물가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, 최근 연방기금선물이 9월 이후 회의에서 동결보다 인상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시장 가격과 궤를 같이한다. 다만 WTI가 여전히 85달러 상단을 재돌파하지 못하고 VIX도 15.27(-1.17%)로 낮은 구간에 머무는 만큼, 오늘 흐름은 기존의 '연준 3중 매파 + 글로벌 커브 동반 스티프닝 + 호르무즈 리스크' 판단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, 새로운 국면 전환 신호로 보기는 이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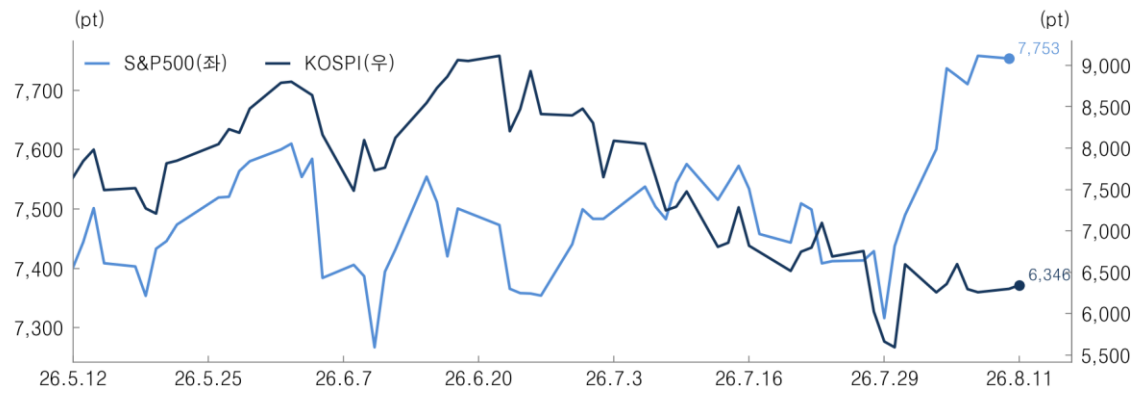
유럽에서는 라인강 수위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독일 산업계에 실질적 차질이 나타나기 시작했다. 화학업체 코베스트로는 일부 제품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고, 유니퍼·EnBW의 수력발전 가동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물류·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. 한편 금 가격은 온스당 4,367.91 달러로 0.52% 내려 중동 리스크 고조에도 안전자산 매수가 뚜렷하지 않았던 점이 눈에 띈다. 아시아 증시(닛케이 +2.08%, 코스피 +0.73%, CSI300 -0.81%, 항셍 -1.10%)는 모두 전일 오후 마감된 수치로, 밤사이 이란의 봉쇄 유지 발표와 뉴욕증시 약세를 아직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. 오늘 아시아 개장에서 이 같은 재료가 어떻게 소화되는지가 1차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.

글로벌 주요 자산

자산별 기준 시각 표기 · 직전 확정 종가 대비 · TradingView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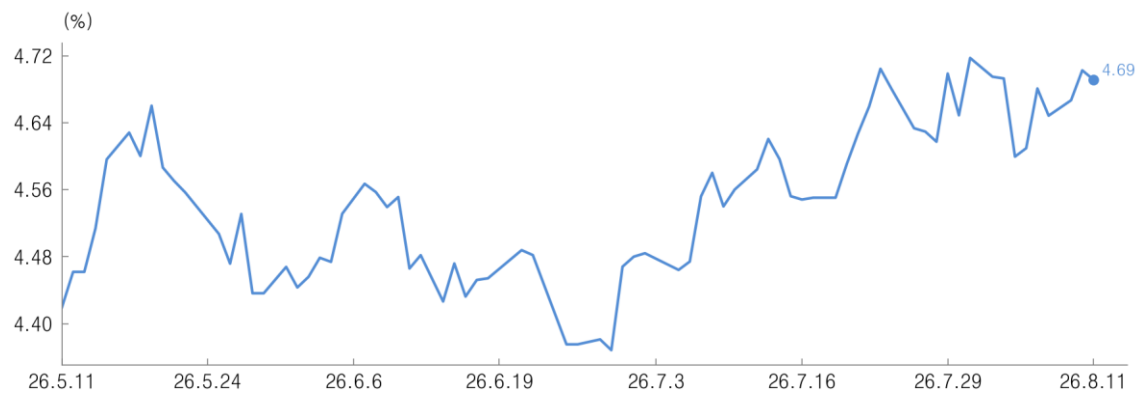
구분	자산	가격	전일 대비	기준
주식	S&P 500	7,728.20	-0.32%	8/11 증가
	나스닥	26,445.44	-0.60%	8/11 증가
	STOXX 600	660.52	+0.01%	8/11 증가
	닛케이 225	66,970.00	+2.08%	8/10 증가
	CSI 300	4,663.79	-0.81%	8/11 증가
	KOSPI	6,345.53	+0.73%	8/11 증가
	항생	25,652.82	-1.10%	8/11 증가
환율	달러인덱스(DXY)	99.82	+0.02%	8/11 증가
	달러/엔	159.28	+0.01%	8/12 증가
	유로/달러	1.15	-0.02%	8/12 증가
	달러/원	1,412.27	-0.38%	8/11 증가
	달러/위안	6.75	-	8/11 증가
금리	미국 10 년	4.694%	-1.1bp	8/11 증가
	미국 2 년	4.222%	-2.1bp	8/11 증가
	일본 10 년	2.806%	-1.4bp	8/11 증가
	독일 10 년	3.165%	-1.9bp	8/11 증가
	한국 10 년	4.303%	+6.2bp	8/11 증가
크레딧	미국 HY 스프레드	270bp	-	8/10 증가
원자재	WTI	83.20	+1.30%	8/11 증가
	금	4,367.91	-0.52%	8/11 증가
	구리	6.63	+0.27%	8/11 증가
변동성	VIX	15.27	-1.17%	8/11 증가

S&P500 vs KOSPI — 최근 3 개월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— 최근 3 개월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

권역	요약
글로벌 · 교차자산 뉴스 10 건 HIGH	• 호르무즈 해협 재개 전망 악화, 미-이란 협상 교착으로 유가 상승 압력 강화 ↳ 이란 관계자, '미국이 우리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해협 개방하겠다'며 양측 입장 차이 심화 ↳ 브렌트유 배럴당 \$90 근처에서 거래, 어제 5% 상승하며 에너지 시장 긴장 고조 ↳ 미국 국채 시장도 내일 7 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 발표로 인한 변동성 확대 예상 • 내일 미국 7 월 CPI 앞두고 인플레이션 우려 고조—주택판매 약세까지 성장 우려 복합 ↳ 연준 관계자, 가격 인상과 구매력 악화를 가장 큰 경제 문제로 지목하며 정책 우선순위 시사 ↳ 7 월 기존주택판매 406 만 호(-1.7%), 시장 예상(405 만 호) 부근이나 전월 수정치(413 만 호)보다 약세 ↳ 소기업 신뢰지수는 99.8 로 11 개월 고점(전월 97.4) — 내일 CPI 가 연준의 긴축 지속 여부 결정 핵심 • 호주중앙은행(RBA) 금리 유지, 총재 '추가 인상 상당히 가능' 발언으로 호주달러 강세 ↳ Michele Bullock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추가 인상이 '상당히 가능'하다는 매파적 기조 강조, 회의 중 인상안이 적극 논의됐음 공식 확인 ↳ 호주 3 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지며 호주달러/미달러 환율 반등세 지속 • 신흥국 7 월 채무 유입 회복, 주식 유출 둔화—연간 누적 주식 매도는 \$860 억 기록 ↳ 7 월 신흥국 채무 유입 \$267 억(6 월 \$281 억), 주식 유출 \$78 억(6 월 \$461 억으로 큰 폭 축소) — 비거주자 순 유입 \$188 억으로 2 개월 연속 유출 종료 ↳ 연간 누적(1~7 월) 기존 주식 유출 \$860 억으로 악화(작년 같은 기간 \$90 억 유출 대비 약 10 배 확대), 신흥국 주권 채권 발행은 누적 기록 갱신 ↳ 중국 제외 시 외국인의 주식·채권 동시 순매도 지속, IIF 는 연준 긴축·엔화 개입·지정학 쇼크가 캐리 트레이드(고금리 신흥국 차입·투자 포지션) 붕괴 초래할 우려 제기
미국 뉴스 39 건 HIGH	• 미국-이란 협상 진행 신호도 호르무즈 폐쇄 선언에 걸리며 자산 동시 요동 ↳ 파키스탄·카타르 매개자, 협상 임박·호르무즈 관리 협상 고도 진행 보도 > 유가 약세 기대로 채권 매도 포지션(숏)의 청산 유도, 10 년물 수익률 4.684% (-1.4bp) ↳ 이란 국방안보회의 서기 '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이 요구 수용할 때까지 폐쇄 지속' 발언 > 협상 낙관 급속 퇴조 ↳ 협상 불확실성 재부상으로 아마존·알파벳 등 기술주 하락, S&P 500 -0.32~-0.35%, 나스닥 -0.60~-0.74%, 다우 -0.22~-0.34% 마감, 채권 상승폭 축소 • 연준 고위 인사들, 인플레이션을 최대 경제 문제로 일관되게 강조 ↳ Goolsbee 시카고 연준 총재 (6 월 22 일 촬영 영상 어제 공개): 가장 큰 문제는 산업·고용 붕괴가 아니라 물가 상승 속도 ↳ Venable 애틀란타 연준 임시 총재: 남동부 지역 기업 잡축 결과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음 확인, 중동 분쟁 해결 여부가 에너지 물가 방향 결정 ↳ CME 선물 시장, 9 월 연준 회의 현 금리 유지 또는 0.25% 인상 가능성 반반 수준 평가 • 7 월 일자리 부진 > 9 월 연준 인상 베팅 축소, 달러 안정 (호주 중앙은행은 추가 인상 경고) ↳ 지난주 발표 7 월 고용 데이터 예상치 미달 > 연준 긴축 재개 기대 후퇴

권역	요약
	↳ 어제 미국 달러 안정적 흐름 유지, 호주 중앙은행 금리 4.35% 유지하되 추가 인상 필요 가능성 남아 있음 경고 > 지역별 통화정책 분기 • 기존 주택 판매 -1.7%로 2 개월 연속 하락, 공급 부족·금리 압박 동시 진행 ↳ 기존 주택 판매 -1.7%(412 만 호/월·연율), 2 개월 연속 하락, 재고 -1.9%(154 만 호), 중위가격 +2%(43 만 4,100 달러) ↳ 공급 부족으로 가격 경직, 모기지 금리 상승까지 겹쳐 잠재 매수자 이탈 > 주택 시장 회복 지연 우려 • 자동차 대출 기록 경신 212 억달러, 신용카드·홈에퀴티 잔액도 증가 (전체 소비자 부채는 소폭 감소) ↳ 자동차 대출 신규 실행 2 분기 기록 212 억달러, 신용카드·홈에퀴티 잔액 각각 순증가 ↳ 전체 소비자 부채 18.8 조달러로 소폭 감소 > 부문별 편차 확대에 차입 행태 변화 시사 ↳ 신용카드 연체율 4.7%로 전분기 4.8%에서 개선 • 마진 대출 2 분기 6% 증가, 은행 최대 대출 부문 부상 (거래 펀드 위기로 시스템 위험 부각) ↳ 대형 은행(뱅크오브아메리카·골드만삭스·JPMorgan 등), 고수익 추구 투자자에 마진 차입 자금 급증 제공 ↳ Leopold Aschenbrenner 펀드의 위기 사례처럼, 마진 거래 위험 증대로 시스템 위험 우려
유럽 뉴스 6 건 HIGH	• 라인강 수위 역대 최저로 독일 산업 생산 차질 ↳ Covestro 특정 제품 불가항력(force majeure) 선언; Uniper·EnBW 수력발전 출력 감소 ↳ 화학업체·제철소·농산물 유통업체 등이 운송 병목·생산 억제·원가 상승 우려 제시 (광범위 생산 중단은 아직 보고 없음) • 호르무즈 협상 신호에 유가·유로존 채권 수익률 등락, 독일 가스 공급 우려 재점화 ↳ 어제 오후 트럼프의 이란 배상금 요구로 유가·독일 채권 수익률 상승(10 년물 +2bp = 3.201%), 이후 오만-이란 협상 진전 신호로 하락 반전 ↳ Uniper CEO, 호르무즈 해협 폐쇄 지속 시 독일 가스가격 €50~60/MWh 수준 유지 예상 (독일 가스 저장소 충전율 8 월 9 일 기준 48%, 전년동기 64%, EU 평균 59% 이하) ↳ 후티 무장단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소형 화물선 공격(선원 3 명 사망)으로 중동 에너지 해상운송 차질 지속 • 파운드/달러 1.35 상단 이탈, 연준 비둘기적 입장·약한 미국 고용에 달러 강세 ↳ 파운드/달러 1.3499 근처(당일 범위 1.3515~1.3492); 저항선 8 월 10 일 고점 1.3530, 7 월 15 일 고점 1.3556; 지지선 1.3493(화요일 저점), 1.3462(10 일선), 1.3408(200 일선) ↳ 연준 최근 금리 인상 중단 + 약한 미국 고용 데이터로 달러 약세 압력 축소, 시장은 9 월 25bp 인상 확률 50%, 12 월까지 누적 30bp 인상 예상 ↳ 수요일(8 월 13 일) 미국 CPI 발표가 파운드화 추가 변동 결정 주요 변수
EM 기타 뉴스 23 건 HIGH	• 이란, 호르무즈 해협 폐쇄 지속 — 미국의 조건 수용 요구 ↳ 이란 국가안보위원회 신임 사무국장 레자에이, 8 월 11 일 미국의 행동 변화 없이는 해협 폐쇄 지속 선언 ↳ 핵심 요구조건: 미국의 전쟁 종료 선언, 해외 동결 이란자산의 해제, 중재국을 통한 추가 조건들 ↳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50 년 미국 손실 배상 요구로 외교 전망 악화 • 러시아, 북한산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남동부 철강공장 공격 — 7 명 사망

권역	요약
	↳ 자포리자 자포리츠stal 공장 피격, 근로자 7명 사망·공장 일시 운영 중단 ↳ 젤렌스키 대통령,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사용 확인 • 후티,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화물선 공격 — 선원 3명 사망 ↳ 탄자니아 국적 화물선 티하마호 피격, 선원 3명 사망 ↳ 2월 말 중동 갈등 이후 후티 공격으로 인한 첫 사망 사건 • 우크라이나 드론, 러시아 최대 온라인 소매사 와일드베리스 공격 — 경제손실 약 \$20~40억 ↳ 와일드베리스 창고를 20회 이상 공격, 약 100만 명의 판매자에게 영향 ↳ 젤렌스키, 러시아 경제 제약을 통한 압박 전략 강조 • 러시아-시리아 군사 기지 협약 체결, 모스크바-다마스쿠스 관계 강화 • 미국-이란 협상 난조 조짐으로 걸프만 주식시장 약세 ↳ 호르무즈 해협 개통 전망 악화로 지역 위험 심화 ↳ 사우디 벤치마크 지수(TASI) -0.1%, 사우디아라비아 채굴회사(1211.SE) -1.2% • 러시아 중앙은행, 2026년 말 구조적 유동성 적자 2.4~3.6조 루블 전망 ↳ 은행권의 중앙은행 경매 수요는 6~7.2조 루블로 예상 • 체코, 7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1.7%, 코어 인플레이션 3.0% 기록 — 글로벌 에너지 압력 ↳ 코어 인플레이션 3.0%는 과거 1년 중 최고 수준(기준선 2.9% 상회), 유가 상승·경유세 복귀로 헤드라인 상승 ↳ 체코 중앙은행, 글로벌 에너지·식품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통화정책 신중성 강조, 연말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2% 근처 유지 기대 • 러시아, 1~7월 예산 적자 -6.46조 루블(GDP의 2.8%), 월별 악화 추이 ↳ 세입 증가율(+8.8% YoY) < 지출 증가율(+14.5% YoY), 지출이 수입을 큰 폭으로 초과 ↳ 6월말(-5.7조 루블, 2.5%) → 7월말(-6.46조 루블, 2.8%)로 악화 • IMF, 기니와 41개월 기금융통(ECF) 협약 체결 — 규모 약 3.1억 SDR • 남아공 랜드화, 5개월 고점 근처 유지 — 미국 약한 고용지표로 리스크 선호 심화 ↳ 8월 11일 달러당 16.18 랜드, 3월 2일 이후 최고 수준 유지 ↳ 약한 국내 고용·제조업 지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리스크 선호 심화로 랜드 강세 지속 • 남아공, 6월 제조업 생산 -1.7% YoY, 시장 예상(-3.8%) 상회 ↳ 3개월 누적: -1.5%(전 분기 대비) ↳ 월간 계절조정: +0.9%(컨센서스 +0.2%) • 터키 경상수지, 6월 -\$50억·연간 -\$517.5억 적자 예상(로이터 설문) ↳ 6월 적자 예상: \$45~55억 범위(10명 이코노미스트) ↳ 2026년 연간 적자 예상: \$450~628억 범위
중국 뉴스 1건	• 중국-인도네시아 해군 공동훈련, 대만 동쪽 민감 해역에서 8월 중순 실시 ↳ 중국 국방부가 어제 공식 발표한 공동 항해 연습으로, 중국 해군 함정과 인도네시아 해군이 참여 ↳ 6월부터 추진 중인 대만 동쪽 해안경비 강화에 이어 해상 주권 주장 지속 ↳ 대만 정부와 미국·서방권의 우려 초래
일본	• 일본은행(BOJ) 9월 조기 인상 신호 후에도 엔화 약세 지속 — 시장, 정책 효과 제한적 평가

권역	요약
뉴스 2 건	↳ 일본은행(BOJ)의 9월 조기 인상 가능성 신호 → 미국의 사전 예고 없는 엔화 방어 개입 실행 ↳ 엔화 달러당 159.1 엔 근처에서 맴돌며, 전일(08/11) 개입 직후 반등분의 절반 이상 소거 ↳ 시장은 9월 인상 가능성을 이미 50% 확률로 평가 중이며, 금리 인상 단독으로는 지속적 엔화 강세 견인 어려울 것으로 분석 • 호주 중앙은행, 정책금리 현 수준 유지 ↳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 결정 (시장 예상과 부합) ↳ 호주달러 8주 고점 근처에서 보합 유지
인도 뉴스 4 건	• 인도 정부채 약세, 유가 상승 압박 — 미-이란 협상 난항 ↳ 브렌트유 어제 저녁 \$87.7로 마감, 일시 \$90/배럴에 근접 — 미국-이란 평화협상 교착에 따른 지정학 위험 재부상 ↳ 인도는 세계 3대 석유 수입국, 유가 상승 시 인플레이 가중·재정·경상수지·환율 악화 복합 우려 • 피치(Fitch), 인도 국채 'BBB-' 등급 유지 — 성장 강점과 고부채·청년실업 위험 병존 ↳ 긍정평가: FY27 경제성장 6.4% 예상, 부정평가: 정부부채 84.4% GDP(BBB 중위수 57.0% 대비 44포인트 높음) ↳ 청년 실업 증가가 중기 재정 여건 악화 리스크 — 외환보유는 FY27 말 약 \$7,330억 수준 전망 • 인도 주식펀드 7월 자금 흐름 양극화 — 대형주 유출·소형주 기록 유입 ↳ 7월 순 유입 약 2,470억 루피(\$25.9억), 전월대비 -14.8% — 2023년 12월 이후 처음 대형주 펀드 유출 ↳ 소형주 펀드는 사상 최대 유입 기록, 전체 주식펀드는 65개월 연속 순유입 달성 ↳ 배경: 기업 실적 호조, 인도중앙은행(RBI)의 환율 지지 지속, 유가 약화 경향 • 인도 직접세 수입 4월~8월 누적 23% 증가, 8.1조 루피 달성 ↳ 순 직접세 8.1조 루피(전년 동기 +23%), 총 직접세 9.5조 루피(+20%) ↳ FY27 연간 목표 27조 루피 대비 현재까지 진행 순조
브라질 뉴스 9 건	• 7월 연 인플레이션 4.44%로 둔화, 중앙은행 목표범위 복귀 ↳ 전월 4.64% 대비 0.20%포인트 하락, 시장 예상(4.40%)과 거의 부합 ↳ 월간 기준 0.07% 상승으로 예상(0.03%)을 상회, 주택 0.99% 상승·식료품 0.67% 하락 등 품목 간 엇갈림 • 중앙은행 4번째 연속 25 베이스포인트 인하로 기준금리 14.00% 결정 —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, 추가 인하 신호 부재 ↳ 8월 4-5일 회의에서 기준금리(Selic) 0.25%p 인하 결정 ↳ 회의록: 긴축 통화정책의 경제활동 영향 점증·인플레이션의 수요 견인 성격 강조, 향후 인하 방향성 미제시 ↳ 공급 충격의 2차 파급 효과(임금·기대 인플레이션) 모니터링 필요성 병행 표시 • 브라질 자산 급락, 지역 내 자본 재배치 신호 ↳ 벤치마크 주가지수(BOVESPA) 2.56% 하락으로 6개월 최저 기록, 브라질 통화(실) 환율 1개월 최저 ↳ MSCI 라틴아메리카 지수 2.5% 하락·지역 통화 0.7% 약세, J.P.Morgan의 브라질 중립등급

권역	요약
	강등·페루 상향 평가 ↳ 콜롬비아 주가지수의 7 주 최고치 달성, 지역 내 자본 선별적 쏠림 반영 • 10 월 대선 앞두고 우파 후보 캠프, 채무 연계 재정규칙 개혁 추진 ↳ 상원의원 Flavio Bolsonaro (전 대통령 Jair Bolsonaro 의 장남) 캠프의 현 예산규칙 대체용 새 재정 체계 초안 작성, 헌법 수정안 형태의 의회 제출 계획 ↳ 채무 증가 시 실질 지출 증가율을 0%로 제한하는 강화된 지출 상한선 골자
멕시코 뉴스 3 건	• 멕시코 6 월 산업생산 전년 동기 대비 +1.7% 성장 ↳ 월간 기준(5 월 대비) +0.2% 소폭 증가
남미 기타 뉴스 4 건	• 콜롬비아 신임 우파 정권, 전임 좌파 정부의 2027 년 예산안 재검토 지시 ↳ 어제 국회 경제위원회가 페트로 전 좌파 정부가 작성한 예산 초안을 이스프리엘라 신임 우파 대통령 정부로 반환, 정책 조정 요청 ↳ 신정부의 수정 예산안 제출 기한 8 월 30 일, 국회 의결 예정일 10 월 20 일 ↳ 2027 년 세출 규모 약 \$1,840 억(575.7 조 페소, 1 달러=3,125.47 페소) • 아르헨티나 7 월 월간 물가 2.0% — 경기 둔화 속 밀레이의 초반 성과 정체 ↳ 로이터 설문 기준 7 월 월간 물가 상승률 2.0% 예상으로 6 월(1.9%) 대비 소폭 상승, 연간 기준 33.5%로 전월과 동일 ↳ 경제 성장 둔화 속 추가 물가 압력 완화의 구조적 한계 노출, 정부 취임 초기의 안정화 추진 모멘텀이 정체 국면 진입 ↳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주요 도시 상인층의 사업 운영 부담 심화로 광범위한 불만 누적
프론티어 뉴스 11 건	• 케냐 중앙은행, 기준금리 8.75% 유지(3 연속 동결) ↳ 로이터 설문 이코노미스트 7 명 모두 현상 유지 예측과 일치 ↳ 7 월 소비자물가 6.5% YoY 소폭 상승도 정책 기조 적절하다고 판단, 글로벌 유가 변동·인플레이션 2 차 효과 모니터링 필요 ↳ 2026 년 글로벌 성장률 3.0%로 둔화(2025 년 3.5% → 3.0%), 중동 에너지 가격 상승·무역정책 불확실성·러시아-우크라이나 갈등이 주요 위험 • 스리랑카 중앙은행 총재,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중단 선언 ↳ 5 월 100bp 대폭 인상의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 입증 ↳ 인플레이션 현 수준에서 정체, 2027 년 상반기 5% 목표로 회귀 전망 ↳ 경제성장률 4~5% 범위 유지, 외환보유액 연말 \$80 억 도달 예상 • 나이지리아, 심해 석유가스 투자 규제체계 승인, \$500 억 투자 유치 추진 ↳ 규제 불확실성·높은 프로젝트 비용·국제 경쟁으로 신규 상류 석유 투자 부진 지속 ↳ 신규 규제체계(심해 석유가스 프로젝트 인센티브), 기존 프로젝트별 개별 협상 방식 대체 • 케냐 2027/28 재정연도 예산적자, GDP 5.7%로 축소 전망 ↳ 국내 순융자 1.09 조 케냐실링, 해외 순융자 2,359 억 실링 계획(2026/27 6.2%에서 개선)

출처: Reuters,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,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,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.